

buddhanews.com

# 아는 것도 뚝뚝 한데 뭉쳐서 그냥 공에다 놓으세요

## A21면에서 계속

를 하면 돌이 되죠? 믿는 거 하나, 즉 말하자면 자기 주치의 영원한 자기의 근본을 믿을 때는 그냥 믿는 거뿐입니다.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근본을 믿고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따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 아름이 두려워요

스님께서는 치병의 도리에 대해 누차 말씀해 주시지만 그걸 완전히 제 것으로 소화해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경을 조금만 썼다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서 특별한 병명이 없이 그냥 신경성이라 그러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공부로 잘 풀리고 싶지만 너무 아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나오. 스님, 저는 이 아름다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은 곤충의 집합소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면서 진화가 돼서 사람은 됐으나 사람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다 자기가 지어 놓은 인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 자체 속에 있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우글우글해도 곤충하고 뭐 다른 게 있으며 별래하고 뭐 다른 게 있으며 집승하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모습만 천차만별로 다를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두 속에서 곤충을 넣어 놓고 그것이 제거됨을 몰아서 내가 좋으니 내가 좋으니 이려고 사니까 못된 병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벌레 곤충들이 싸움이 나서 서로 잡아 죽이면 그냥 굶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이러한 사태를 알고 이걸 대처를 하고 지내면 사는 것도 좀 윤택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복하라. 네 몸속에 있는 중생들도 돌이 아니게 조복하라.' 그런 거죠. 그 모습 속에 있는 곤충들이 이 사람과 돌이 아니어서 하나로 공해야지 이 곤충 몸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가 아프다 이렇다면 그거 그 아픈 것만 생각하고 아담법석들을 하고 또 어디가 무너졌다 그러면 그 무너진 것만 가지고 법석들을 하는데, 지금 시급한 게 뭐니까. 이 곤충주머니에서 벗어나는 게 시급하지 그것이 문젠가요? 그래서 그런 병 증세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방편을 삼아서 공부해라 이런 것이죠.

왜 부처님께서 약사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이다 지장보살이다 이렇게 이름을 내놨겠습니까? 그 관리인들의 이름은 이름일 뿐이지, 여러분이 다 근본에다 한데 합쳐 놓으면 보살이나 중생이나 돌이 아니다 이겁니다. 모든 게 부처로 돌아 아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돌이 아닌 까닭에 의식들의 그 인과성도 병 증세도 그냥 없애지는 거죠.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병부터 생각하니까, 나빠진 것만 생각하니까, 인생은 짧고 벗어나기는 건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하느냐. 그 처

리는 한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한생각!

모든 걸 자기가 지어 놓고, 인과성이나 유전성이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곤 다 놓아서 버리라는데도 안 버리고 오히려 그냥 이거 낮게 하는 그것만 가지고 야단이거든요. 하나가 없다면 둘 셋이 다 없애지는데 말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은 태어나기 이전의 자기를 무시한다 이겁니다. 태어나기 이전 자기는 정신계의 자기이고, 지금 현상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는 바로 그 정신계의 자기가 형성시켜 놓은 자체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 뿌리를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병이 낮고 안 낮고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거는 자기한테 그대로 보배로서 있는 건데 말입니다.

그거를 진짜 알아서 '낮게 하든지 낮지 않게 하든지 돌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할 수 있잖아, 지켜주는 것도 너고, 이끌어 주는 것도 너고, 해결사도 너고, 죽이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야. 너뿐이

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났을 때 진짜로 믿고 실천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보기가 좋고 그런 곤중 속에서 우리가 헤어지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 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불법에 심취해서 나름대로 마음을 비우고자 수행을 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경전 공부도 해 보고 절도 해 보고 주력 염불도 해 보고 화두 참선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노력을 해 보지만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스님께서는 놓으라고 하시는데 주워 들은 게 많아 아는 게 많은 탓인지 자꾸 따지고 들게 되어 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두 각자의 물건이 다 있으면서도 공입니다. 공에다가, 아는 거든지 모르는 거든지 머리에서 좀 아는 거는 다 공에다 뉘으면 좋겠습니다. 놓는 것도 믿어야 놓

게 되는 거죠. 저절로, 아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지만 그건 이차입니다. 이차로 돌리셔야죠. 자꾸 그 게 앞서기 때문에, 앞설 것이 자꾸 뒤서기 때문에 이게 엇갈리고 아리송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발견하는 거는 상당히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좀 미련한 듯해야 쉽습니다. 그러니 아예 그냥 무조건 놔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는 억만 가지로 이 실이 두리두리 엉켜서 잔뜩 쌓여 있거든요. 그럼 이걸 풀려면 이 인간으로선 보이지 않는 실밥이 뭉친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서 풀어야지, 보이는 데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놔야 그 실밥은 한순간에 풀릴 수 있는 거죠. 그 한순간에 풀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모든 것을 쌓았기 때문에 탑 위에 봉우리가 올라가는 거지, 탑을 쌓지도 않고 그걸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그냥 놔 보십시오. 오늘부터 놔지나 안 놔지나, 그 본래 놔져 있다고 놓고 간다면 그것까지 아시는 분이 그 실현을 하지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고 보면 그 중생들이 달라 해서 나는 심부름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는 중생들의 심부름, 위로는 그 부처님의 시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의 중생들을 모두 흡수해야 된다.' 이라는 거는 조복을 해야 된다. 한마음으로 조복이 돼야 내가 마음먹는 대로 한마음으로 따라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들이 다 보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자기 마음을 그대로 천차만별로 보살행을 하게끔 자유권을 줬습니다. 자유권을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자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권이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휴! 내가 이거 뭐 중생인데 이것을 이렇게 허공에 발을 떼어 놓을 수가 있나?' 이러지만 우리는 그냥 거기다가 맡기고 관하고 이라는 게 그대로 내가 죽는 방법이고, 내가 함이 없이 하는 방법이고, 돌 아닌 도리를 아는 방법이고, 구경계에 이르는 방법이고, 전부가 아니 되는 게, 아니 하는 게 없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기별이 왔는데 "지금 하늘이 심합니다. 급하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쪽의 마음도 이쪽의 마음도 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길다 짧다, 약이다 선이다 이거를 전제하고 무조건이었습니다. 무조건이입니다. 우리도 무조건입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아야 됩니다. '너는 그렇게 알맞게 했으니깐 너 그렇게 해도 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부처님의 그림자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직껏 수차례 걸쳐서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리고 실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것도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공에다가 그냥 '돌이 아닌데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관하면 그 주인공으로 그냥 나투게 됩니다. 나투게 돼서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 때는 그 사람이 급하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는 관하는 것도 가르쳐 줘야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 멀리 있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일단은 무조건 줘야 합니다. 아셨죠?

그게 바로 무심도리요, 바로 공의 도리요, 공체의 도리요, 공식의 도리입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뭐든지 내 줄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근본자리는 내도 내도 줄지 않고 또 놓어도 놓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이 허공을 다 집어넣는다 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건 체가 없는 까닭입니다. 체가 없는 데다가 체가 없는 걸 놓으니까, 이 천차만별의 생명들을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다 자유권을 줬는데, 마음을 자유대로 쓰라고 했는데 자유스럽게 쓰질 못해요. 이게 적다 크다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속으로는 이게 적다,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만약에 급한 일에는 판단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 보세요.

##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 구멍 없는 구멍

## 나고 드는 곳은 오직 거기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야.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지극하게 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도 먼저처럼 때때로 남의 속에 들어가서 견지합니다. 그렇게 하게끔 약사보살을 낸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의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의사가 있고 다 있어요. 그렇게 잘나잘나 나투면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넘기가 어려워서 모두 애통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넘기가 어렵더라도 좀 실천을 해 보고, 죽고 사는 거 그까지 거, 아니 그렇다고 해서 누가 굶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게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집착을 하고 살지 말라 이거죠. 오직 몽둥이 하나 들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라 이거죠. 오직 몽둥이 하나 들고, 이게 바로 주장자며 불성입니다. 자불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는 것이지, 자기 뿌리를 믿지 않고 저 큰 나무 이름이나 형상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는 그거는 공덕이 하나도 될 수 없느니라.' 했거든요.

마음공부 하는 이 도리네요. 한 번 인연을 만나는 게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마음공부 하는 게, 이 옷 벗고 옷 속에 그 곤충의 세계를 다 벗어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

할 수 있습니다. 털 밍기 때문에 못 놓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직 들고 나는 것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구멍 없는 구멍. 나고 드는 곳은 오직 그거 한군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군데를 노리고 거기에서, 놓는 것도 거기에서 놓으면 됩니다. 그건 무조건, 그냥 무조건이예요.

차라리 무지막지하게 모르는 사람 같으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는 게 머리에 너무 많단 말입니다. 꼭 찾아요. 그러나 그 아는 것도 뚝뚝한데 뭉쳐서 그냥 공에다 놓으세요. 놔도 그 자리가 그 자리니까요. 머리에서 아는 게 떠올라도 처음에는 놓으셔야 합니다.

그럼 그걸 어디다 놓느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없다면 공도 없다는 거, 바로 내가 공이니까 나한테 놔야죠. 그것도 이름해서 '당신 주인공에다 놔.' 하거든요. 내가 공인데 거기에 무슨 화두가 또 붙느냐 이겁니다. 내가 공이고 내가 화두인데, 그 화두에다 놔라 이거예요.

놔 버리다 보면 자연적 씩이 뜨게 됩니다. 그때에 의정이 나게 되죠. 정말 의정이. 그제 생활 속에서 의정이 아닌 게 없어요. 그때 판 사람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다 놓을 수 있어서 다 놓게 되면, 그때 딱만 단다면 그때는 그 아는 것을 써먹

### 동생도 이 마음공부를 했으면...

제가 아는 동생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시다.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어떤 때는 너무 이기적인 면이 보여서 살짝 미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락을 받으니까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 너머에 너는 고생 좀 해 봐야 된다는 마음도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회복되면 한국에 돌아와 산다는데 빨리 회복돼서 돌아 왔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큼니다. 이 기회에 그 동생도 마음공부를 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을 내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반가워서 악수를 할 때에 마음이 가니깐 손이 텅텅따 따라가는 거지 마음이 안 가는 데 손이 악수를 하려고 텅텅따 따라갑니까? 그래서 마음이 움죽거리는 것이 여러분이 움죽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몸이 매어 있다 이겁니다. 그 매인 몸은 공했다. 매인 몸이기 때문에 공했다 이겁니다. 잘나잘나 물을 마셔도 내가 마셨단 말을 못합니다. 왜? 이 지구와 같은 이 몸 속에 이 생명체들이 수없이 얽히고설켜 있음으로써 어떤 것이 먹는다고 할 수 없으니깐 '내가 먹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냉정히 따지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부산불교회관은 도심포교를 위해 계획 설계된 미래 불교 도량입니다

부산불교회관 (부산시청 옆)

## 여여선원 · 여여정사

(부설) 신행학교 · 여여불교대학 · 수선회

선원장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

수선회	선	감	도경스님
김해포교원	주	지	도명스님
여여선원	총	무	효산스님
	명예회장		김경환
	신도회장		이향순

신도회, 총동문회, 복지회, 다여림회, 선림회, 여여산악회, 지장회, 관음회, 천일기도회, 어린이회, 여여불교대학, 기초교리반, 선불교대학원, 금강경반, 원각경반, 화엄경반, 법화경반, 참선반

- 여 여 선 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57-1 부산불교회관 TEL. 051)853-5486~7 / FAX 051)863-6422
- 여 여 정 사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TEL 055)355-9290~1
- 김해포교원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416-1 TEL 055)311-2911~1

대한불교조계종

## 불암산 불암사

주 지 일 관  
신도 회장 허일심화  
거사림회장 조철호

송산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일면

사 부 대 중 일 동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정리 797번지 ☎ 031)527-8345 / www.bulamsa.com
- 송산노인복지관 : ☎ 031)852-2595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